

늘어난 전자도서열람실

경애하는 **김정은**동지께서 2016년 12월 어느날 새로 개건된 강원도의 어느한 야영소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.

우리 아이들을 위한 또 하나의 과외교양기지가 훌륭히 일신된것이 그리고 만족하신듯 야영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안광에는 시종 기쁨의 미소가 어려있었다.

한 일군이 경애하는 그이께 야영소에 전자도서열람실을 꾸린데 대하여 말씀올렸다. 그러자 그이께서는 반색하시며 거기에 가보자고 하시였다.

전자도서열람실에 들어서시여 그 운영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전자도서열람실이 야영1각에만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전자도서열람실을 각마다 꾸려놓고 컴퓨터를 40대정도씩 놓아주면 좋을것이라고 하시였다.

이곳에서 한기에 수백명의 야영생들이 생활을 한다고 볼 때 전자도서열람실의 수용능력이 모자랄수 있다는것을 헤아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였다.

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전자도서열람실을 각마다 꾸려야 야영생들이 전자도서를 낮에도 열람하고 밤에도 열람하게 하여 열람실의 리용률을 높일수 있다고 하시면서 야영생들이 야영기간에 전자도서를 열람하면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는데도 좋고 컴퓨터기술을 련마하는데도 좋다는데 대하여 간곡히 이르시였다.

이렇듯 과외교양기지를 하나 꾸리여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이곳 야영소에는 전자도서열람실이 더 꾸려지게 되였다.